

## 제1차 「구성원 대토론회」 결과 보고

주제	글로벌대학 30 사업 관련 자유 토론		
개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최일시: 2024. 5. 29(수) 16:00 ~ 18:30</li> <li>- 개최장소: 인문대학 문원강당</li> <li>- 참석인원: 140명</li> <li>- 공동주관: 충남대학교, 교수회, 직원협의회, 조교협의회, 총학생회, 대학원총학생회</li> <li>- 사회자: 사회과학대학 손병우 학장</li> </ul>		
질문 (건의)자	질문 (건의)자	질문(발의) 내용	답변 내용 (기획처장)
	교수회장	<p>-지난 집행부의 졸속 통합의 문제점,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통합만을 주장해왔음.</p> <p>현 집행부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지난 집행부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.</p> <p>-현 총장님에 대해 기대하는 사항</p> <p>1)이번 글로벌사업 예비지정 신청 과정은 공론화과정이 생략되었으며, 총괄위원회와 학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졸속한 통합으로 보여 지는데, 통합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 및 앞으로의 방향성 등이 궁금함.</p> <p>2)한밭대학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특임 총장 임명 등 대등한 통합을 요구 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었는데, 본계획서 준비 과정에서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한밭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합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</p> <p>3)기획처장 4월 18일 이메일에서 본지정 후 통합 승인 신청서 준비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지정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핵심 계획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</p>	<p>-캠퍼스 재배치 부분은 기획처장 메일에서 밝힌 바와 의견이 같음.</p> <p>-규모적 측면에서 대등한 통합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지 않음.</p> <p>-교섭하는 대상의 학교가 있고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를 할 수는 없음.</p> <p>-본 계획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며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 20% 정원 감축을 예비한 것임.</p>

전기공학과 정○○ 학생	<p>-토론회 일정이 시험 기간과의 중복 문제 지적</p> <p>-통합으로 인한 학생 질 저하 우려</p>	<p>-시험 기간과의 중복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, 다음 토론회 일정 조정 및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.</p>
공과대학 김○○ 교수	<p>-공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사 학과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</p>	<p>-유사학과 통폐합 관련 학과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통합하지 않을 것임.</p>
사범대학 정○○ 교수	<p>-AI 시대에 맞게 한글 중심의 AI 및 다중언어 교육 및 언어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세계 교육대학원 수립이 필요함.</p>	
정○○ 교수	<p>-캠퍼스 재배치나 20% 정원 감축 관련 구성원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차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</p>	
대학원 총학생회장	<p>-예비지정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</p> <p>-본지정 계획서 내기 전 구성원들의 통합에 반대한다면 통합 내용을 삭제한다 하였는데 본지정이 예비 지정과 다르다면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</p> <p>-(추가질의)학생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음. 학생복지 대안 및 학과 논의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왔음, 학생회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를 요청함.</p>	
총장	<p>-총장이 되기 전 혁신기획서가 제출되었고, 총장 임용 되기 전 통합에 대한 입장과 현재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음.</p> <p>-통합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, 앞으로 구성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며, 글로벌대학사업이</p>	

		<p>선정되어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.</p> <p>-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, 통폐합 문제 해결은 각 학과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겠음.</p> <p>-학교에 도움되지 않는 통합은 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졸속통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.</p> <p>-학교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글로컬대학30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, 인위적인 통합, 화학적 통합을 구성원의 동의없이 진행하지 않을 것임.</p> <p>-무학과 관련 학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들 입장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 하겠음.</p>	
	<p>사회과학대학</p> <p>김○○</p> <p>교수</p>	<p>-매주 수요일 오후 4시 개최를 하는 경우 이 시간에 수업이 있는 교원이나 학생의 경우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2, 3차 일정은 요일, 시간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으며,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록을 공유하기를 요청함.</p> <p>-다음 번 지정 토론회에서는 전임 집행부가 나와서 글로컬 기획서의 배경을 설명해주었으면 좋겠음.</p> <p>-기구와 조직 제도 등을 간소화시켜 효율화하면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.</p>	
	<p>경상대학</p> <p>김○○</p> <p>교수</p>	<p>-학과통합과 관련하여 모집단위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안하겠다고 선언하면 글로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</p>	<p>-글로컬30 사업 계획서가 통과가 되더라도 차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할 것임.</p> <p>-학과에서 논의를 하여 결정하여</p>

		<p>(예를 들어 화학적 결합은 향후 20~30년후 진행하고 현재부터 10년은 물리적 결합부터 진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는지)</p> <p>-유사학과의 경우 화학적 결합해서 모집단위를 같이 뽑을지 또한 학과에서 의견을 주면 반영되는 것인지</p>	<p>통합을 원하는 학과가 있을 경우 상대 교의 통합 대상 학과를 매칭할 계획임.</p>
	총 학생회장	<p>-(통합관련)구성원이 통합에 반대하여 글로컬30사업이 선정되지 못하여 재정적 타격이 있을 경우 방안이 있는지</p> <p>-(소통관련)토론방식이나 일정에 있어 학생회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참여가 용이한 18시 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.</p> <p>[요청사항]</p> <p>1)1차 토론회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구성원과 공유해줄 것을 요청</p> <p>2)토론회 일정 및 진행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를 요청함.</p> <p>3)2, 3차 토론회 방식에 대하여 총학생회가 함께 협의하면 좋겠음.</p> <p>4)국립대학 기초학과 보호를 위해 사업추진 실무 기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요청</p> <p>(추가 질의)</p> <p>-글로컬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무산되었을 때 재정연계성 위험과 관련하여 대안이 있는지</p> <p>-통합을 통한 글로컬사업뿐만 아닌 다른 대안을 확보하여 구성원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</p> <p>(정리 발언)</p> <p>-구성원과 마찰을 빚어낸 게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</p>	<p>-글로컬대학이 선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올해는 100억, 내년은 500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학 발전을 위해서 글로컬사업 수주가 절대 필요한 실정</p> <p>-소통 관련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음.</p> <p>-계획서 작성은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있음.</p> <p>-본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7월 초 초안이 돼서 대부분 어느 정도 범위를 오픈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임.</p> <p>(예를 들어 프라운 호퍼형 모델을 통해 이공계뿐만 아닌 인문·사회 계열을 포함하여, 교양교육 등 글로벌 오픈캠퍼스 비이공계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포함시킬 예정이며,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육성사업을 보전할 것이며,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진행할 예정)</p> <p>-직능단체 대표와 글로컬 분과 실무 위원회가 함께 전반적인 계획서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.</p> <p>-무학과 제도 100%, 정원 20% 등 수치를 내부 혁신으로 내년도에 제시하더라도 글로컬사업 수주는 힘든 상황이며, 따라서 글로컬사업은</p>

			이번에 꼭 선정되어야 함. 이를 통해서 대학발전의 자금을 확보하여 원동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.
	예술대학 조○○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하이브리드 통합 개념에 관련하여 질문</li> <li>-통합 찬성의 경우 모집단위를 같이 하고 통합에 반대의 경우, 연합적 개념에서 통합된 교명을 갖고 따로 모집단위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.</li> <li>-7월쯤 유사학과의 입장을 수렴할 때 유사학과 대상으로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인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유사학과 통합은 양 교의 두 학과가 동의해야만 진행할 예정이고,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.</li> <li>-양교의 두 학과가 동의할 경우, 6월 말이나 7월 초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</li> </ul>
	자연대학 조○○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충남대-한밭대의 경우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타 국립대 사례와 맞지 않는 상황</li> <li>-통합 대상 학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절차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유사학과 관련 교육부의 질의를 통해 합의된 통합 프로세스를 본 계획서에 담을 예정이며, 교육부의 답변은 학교 특성에 맞는 통합 모델을 만들라는 답변을 들었음.</li> <li>-통합 대상 학과의 의견을 물어보는 단계는 차후 빠르게 계획할 예정</li> </ul>
	인문대학 국사학과 박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무학과를 통해 내년학년도 20% 감축을 하게 되면 연차가 지날수록 인문대를 비롯한 기초학과가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학교에서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를 바람.</li> <li>-기초학문을 보호하기 위해 차후 어떤 장치를 도입할 것인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계획서상 40%까지 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우리 학교가 29.7%로 높기 때문에 수업 의무시수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을 마련할 것이며, 비이공계 계열의 현안사항 등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.</li> <li>-입학 모집이 결정되어서 올해는 변경이 어렵지만 교무처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.</li> </ul>
	경상대학 학생회장 배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학과간 통합이 관건인데 이에 대해 학과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이 우려됨, 학과별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모델을 제시해주기를 요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모델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지 못하였음.</li> <li>-학생 복지와 관련하여 차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음(버스 배차, 학과 차원의 예산 확보 및 등록금 관련 등)</li> </ul>

		<p>-글로벌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답변 요청</p>	
	공과대 학 손○○ 교수	<p>-2년간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두 달 정도 남은 시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</p> <p>-홍보와 관련하여 본부(기획처)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음.</p> <p>-통합 등과 관련하여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패널토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보임.</p> <p>-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를 해야 한다고 봄.</p> <p>-기획처에서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</p> <p>-(추가질의)기존의 논의 과정 중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</p> <p>-(추가질의)학과에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시기나 방식이 모호함이 생겨 정확한 방향성 제시를 요청함.</p> <p>-(재추가질의)통합 전제에서 이사비용, 시설 환경 개선, 수업 등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전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</p>	<p>-2차, 3차에 대한 토론회 운영 방법을 논의 후 확정지어 홍보를 하겠음.</p> <p>-통합 논의를 완료해서 글로벌30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, 글로벌 사업 수주를 확보한 후 토론을 거쳐 내년 4월(6월 정도까지) 통합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글로벌 사업 분야에서 두 분야를 제시했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야 없이 인문·사회계열까지 고려해서 진행할 것임.</p> <p>-학과별로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계획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학과별로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임.</p> <p>-7월 초, 중순 정도 의견을 묻는 것은 글로벌 사업 계획서 제출할지 말지를 묻는 것임.</p> <p>가능하다면 글로벌계획서 제출과 통합을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음.</p> <p>-규정을 찾아봄으로써 논의를 통한 통합계획서를 만들 예정</p> <p>-(재추가질의 답변) 예산, 신임교수 배정 등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산, 범위 등은 정해져있지 않음. 단 예산, 교원 배정 등 소프트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예정이며, 공간 등 하드웨어적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함.</p>
	인문대 학 서○○ 교수	<p>-통합 및 글로벌대학30 사업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등을 알고 싶음 (의견을 묻는 시기, 횟수 및 학생 교직원들 의견 반영 비율 등)</p> <p>구성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자료를</p>	<p>-투표 시기와 횟수, 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강원대, 충북대 사례를 참조하여 결정하고자 함. 또한 여러 선거 비율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</p>

		<p>공유하고 의견을 모아 검토할 것인지</p> <p>-통합과 연합의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(캠퍼스 재배치와 화학적 통합 없이 인원 감축 없는 방식인지)</p> <p>-인문대학 입장에서 무전공제도와 관련한 공문 관련 답변 요청.</p>	<p>-통합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부의 답변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하겠음.</p> <p>-인문대학 무전공과 관련 접수된 공문은 잘 알고 있으며 추후 교무처 협조를 통해 답변하도록 하겠음.</p>
	토목과 ○○○ 교수	<p>-대학의 존재가치로 연구와 교육이 있는데 통합이 되면 그 주체가 되는 학생의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듣고 싶음.</p>	<p>-등급컷뿐만 아닌 대학원 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격차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우려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.</p>
	인문대학 백○○ 교수	<p>-통합과 연합에 반대, 충남대가 가지는 브랜드 네임의 가치 및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, 외국 타학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음.</p>	
	행정학부 ○○○ 학생	<p>-미래혁신대학, 무학과 등 관련정책들이 구성원에게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음.</p> <p>-통합 관련 계획서를 냈으면 구성원들의 불만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.</p> <p>-개최 일정, 시간이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움.</p> <p>-‘고명’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.</p> <p>-통합을 하게 되면 학생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근거를 제시하여 구성원을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함.</p> <p>-학생들이 충남대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가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.</p>	

-개최사진



기타

